



## 우리 대학교의 19대 총학생회 임원들의 포부를 들어본다.

이번 총학생회장과 임원들은 이전의 총학생회와는 확연히 다른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정현철 학생회장은 우리대학의 학생들이 즐거웠으면 한다고 말하고 특히 비행정계열 학생들의 경우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인 대학생활을 지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전투 한번 안하고도 많은 젊은이들이 죽는나라에서, 헬조선의 젊은 우리학교의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 학생회장(소방안전관리과 정현철)

2017년도 충남도립대학교 19대 총학생회장 정현철입니다.

19대 총학생회는 학생의 '복지'와 즐거운 '학교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임원들과 함께 학생들의 여론을 잘 듣고 늘 더 나은 대안과 방법을 고민하며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부 학생회장(경찰행정과 양주혜)

2017년도 충남도립대학교 19대 총학생회 부회장 양주혜입니다. 총학생회장을 옆에서 보좌하며 학생분들의 불편한 사항, 필요 사항 등을 조사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미숙하지만, 조언, 비판 등을 통해 늘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 총무부장(경찰행정과 김혜진)

19대 총학생회 총무부장 김혜진입니다. 신입생이 총무부장이란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학생분들의 소중한 돈을 필요한 곳에 알맞게 결재하고 총학생회장과 함께 헛된 곳에 회비가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 문화·복지부장(자치행정과 변영대)

19대 총학생회 문화·복지부장 변영대입니다. 학생들의 문화 시설이나 복지 등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헬스장, 동아리 등이 교내에 있지만,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있는 문화 체육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학생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부장(호텔관광외식과 이종성)

19대 총학생회 기획부장 이종성입니다. 학교와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생분들과 소통하며 학교의 주인을 학생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학생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부장(소방안전관리과 고지수)

19대 총학생회 체육부장 고지수입니다. 체육대회, 체육 동아리를 작년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교에 있는 헬스장이나 체육 공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생분들이 운동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보부장(작업치료과 최주예)

19대 총학생회 홍보부장 최주예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총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학생분들의 건의 수집과 총학생회 홍보, 동아리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분께서 총학생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꾸준함을 보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도립대학교 19대 총학생회 따앗입니다.

총학생회에서 금년, 미래에 지속해서 해야 할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총학생회는 학생들의 복지, 동아리 활성화 등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즐거울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현재 내세운 공약 중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청양은 고등학교도 동아리 활성화가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생들의 복지가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일과 후에 동아리에 참여하여 각자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편의시설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충남도립대학교는 동아리 관련 복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도립대는 동아리 수는 매우 많으나 지원과 참여도가 저조하여 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동아리 지원금이 너무 늦게 나와서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학교에서 지원이 늦어지면 그 동아리는 활성화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하지만,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더 많은 홍보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학교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복지입니다.

사실 대학에서의 복지는 의, 식, 주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복지가 우선 강화되어야 합니다. 학교 바로 밑에 있는 청신여자중학교조차도 여자 학생들을 위해 여성용품자판기를 설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청신여자중학교는 적은 학생 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많은 배려와 관심을 보여 여성용품의 제공 등 복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근 대학교들 역시 여학생들의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여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학 구성원의 복지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여성용품 자판기 설치를 늘리고 여학생들의 복지혜택이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식당 내에 있는 원형 테이블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 학생들의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의 수는 120석입니다. 학교 전교생 학생 수는 16년도 기준으로 1,060명입니다. 인원수는 1,000명이 넘지만, 테이블 수는 120석입니다. 확연하게 적은 테이블 수입니다. 테이블 수를 보았을 때 2시간 동안 1,000명이 식사로테이션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식사하는 테이블 옆에는 교직원들의 원형테이블이 있습니다. 원형 테이블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잉여 공간의 활용을 통해 부족한 공간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식사하는 부분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즐거운 식사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형 테이블에서 사각 테이블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학교버스 시간 조정입니다. 학교버스 운행 시간표를 보면 8시에 편종되어 있습니다. 8시에 편종된 버스시간 중 많이 승차하지 않는 시간을 없애고 10시에 승차를 할 수 있는 버스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교생이 9시 수업이 아니라 10시부터 시작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학생들은 택시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배려하여서 10시에 버스를 한 대를 추가하면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필요 없는 지출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큰 것을 그리기보다 사소한 부분을 찾아서 하나하나 바꿔나가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학생분들의 편리함을 생각하고 실용성을 추구해야 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 비판 등을 통하여서 발전하는 19대 총학생회 따앗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9대 총학생회장 정현철—

❖ 문은주 \_ ansdmswn9485@naver.com

## INSIDE

02

학생지원처,  
그곳은 어디인가?

2016년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SCK)에 선정되다!

03

학위수여식 개최

최고의 브랜드 공직진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다!

글로벌 해외인턴십 파견

04

벽천해오름제, 그 막이  
올라가자... 무엇이 문제인가?

대전·세종·충청지역  
전문대학 총장협의회 열리다.

제17회 세계머드  
피부미용경진대회 및  
머드&뷰티페스티벌

05

06

07

친구가 담배가 뽀이 중헌디?

2016 나라 현 차세대양성사업단과  
우호협력 5주년 맞아 간담회 개최

졸업작품전시회 개최

심장으로 하는 스포츠!  
우리학교 농구부 'BROTHERH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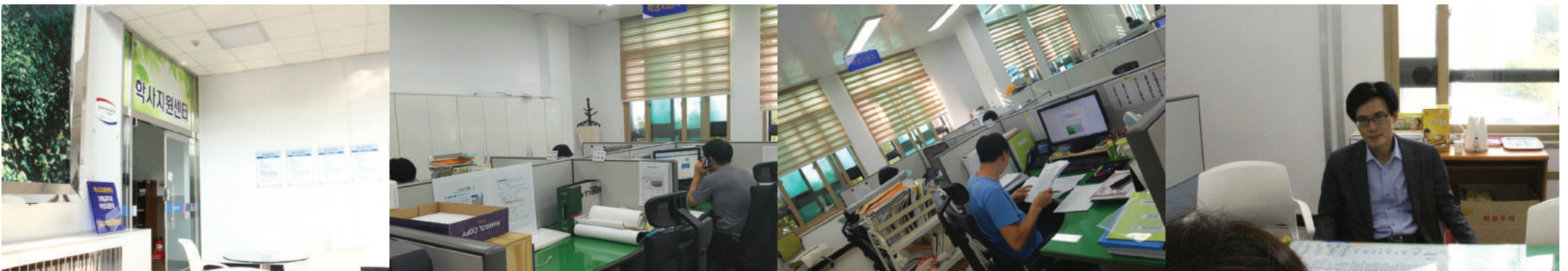


&gt; 위스토리 01

# 학생지원처, 그곳은 어디인가?

우리 학교에는 학생들과 학교를 연결하고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척추 같은 기관 학생지원처가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생지원처를 우리 학생들은 어떤 구성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학우들에게 학생지원처를 소개하고자 학생지원처장을 만나 인터뷰하였다.



▲ 학생지원처는 본관 1층 학사지원센터에서 첫 번째 분단에 있다.

## Interview

기자: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학생지원처장: 학생 기자들도 이 자리에 찾아와준 것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지원처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처 구성원은 처장인 저를 포함하여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저 양석진 교수이고요, 학생지원처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고상욱 팀장, 송승훈 주무관은 공채지원, 심화학습실 운영과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상욱 주무관은 장학금 지원 업무, 동아리 지원을 우종훈 주무관은 생활관 관리와 학생회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무실의 윤미경 선생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직접 관련된 인력은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도서관이나 학생생활연구센터, 상담실 그리고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기자: 그럼 학생지원처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우리 부서는 학생지원처입니다. 말 그대로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의 모든 일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우선 크게 나누면 생활관 운영 관리, 학생회, 동아리 등 학생모임 지원, 심화학습실 운영 관리, 장학기금 확충 및 장학생 선발과 지원 등을 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활관은 편의시설을 점검하며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입사생과 퇴사생도 관리 및 지도하는 것도 저희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학생모임 지원은 총학생회, 동아리뿐만 아니라 대의원회나 신문, 방송사까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은 모두 지원을 하면서 건전한 학생 조직이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공무원에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공무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시행 등의 프로그램 등을 할 수 있는 심화 학습실 운영 관리, 진로지도 등을 하고 있으며, 공채지원운영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교 학생들 70% 이상이 장학생이예요. 국가장학금 비롯해서 교외장학금 등을 통해 가능한 많은 학생에게 장학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발굴하는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외되기 쉬운 장애학생이라든가 다문화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꾸준히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응을 잘 못 하고 중도에 탈락하는 학생이 없도록 상담실 학생생활연구센터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자: 가장 최근에 이룬 학생지원처의 업적은 무엇이 있나요?

학생지원처장: 작년 말 기준으로 학생지원처에서 지원하는 공채지원업무를 통해 42명의 학생이 공무원으로 진출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인력양성을 위해 맞춤형 공직진출프로그램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지원업무이다 보니까 크게 업적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자: 학생지원처의 업무 중 힘들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인가요?

학생지원처장: 보람을 갖고 하는 일이나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까 걱정은 합니다. 그 점을 학생들이 알아주었으면 해요. 우리가 기성세대다 보니 대학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소통을 통해 찾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현재 신입생 실태조사나 수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민과 의견을 마음을 열고 함께 소통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충남도립대학교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학생지원처장: 대학은 꿈을 성취하는 곳인 동시에 젊은 시절의 낭만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이라면 길고, 짧은 시간이라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꿈을 찾고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다양한 친구 관계 형성 등이요, 이런 모든 것이 나중에 성공의 밑거름이 되거든요. 캠퍼스에서 꿈과 낭만을 만들면서 목표에 한발씩 다가갈 수 있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지원처도 적극적으로 학생 여러분을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소정 \_ seally0528@naver.com

&gt; 위빅토리 02

# 2016년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에 선정되다!

2015년 교명 변경과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선정에 이어 최고의 공립대학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 마련



우리 학교가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2016년도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SCK)에 선정되어 2019년까지 매년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우리학교의 특성화사업은 「3S+1C 교육인증체계를 통한 환(圓)황해권 산업발전을 선도 할 실천적 창의인재」라는 주제로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성화 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우리학교는 2015년 교명변경과 고용노동부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선정에 이어 최고의 공립대학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은 2014년부터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84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2,972억 원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 노해밀 \_ mumblecore@naver.com



> 보도자료 01

## 충남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 개최

우리 대학은 7일 대학 해오름관 다목적홀에서 2016학년도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 졸업생 및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는 학사보고와 학위증 수여, 우수학생 표창, 교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학위수여자는 모두 456명으로, 전체 수석의 영예는 정지현(소방안전관리과) 씨가, 차석은 신하늘(컴퓨터정보과) 씨가 각각 차지해 표창을 받았다. 구본충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영광스러운 이 자리는 졸업생들의 노력과 부모님의 정성,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이 삼위일체가 됐기 때문”이라며 “충남도민의 사랑과 지원으로 성장한 만큼, 사회에 나가 지역에 보탬이 되는 일꾼으로 거듭나 줄 것”을 당부했다. 남궁영 부지사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충남의 일꾼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돼 달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립대는 지난 2015년 62명에 이어 지난해에도 42명의 공무원을 배출하는 등 198년 개교 이후 600명이 넘는 공무원을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공직자 양성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남도립대는 또 6년 연속 교육부 교육역량강화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지난해에는 교육부 대학특성화사업(SCK) 선정에 이어 기관평가인증 갱신으로 대학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립대는 복수학위제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중부권 명문 대학으로 거듭나고 있다.



❖ 이현수 \_ hs7581@naver.com

> 보도자료 03

## 충남도립대학교 글로벌 인재 양성에 앞장서다!



### 해외 인턴십 선발학생 3명에 대한 선발증서 수여식과 학부모 초청 설명회 가저

우리 학교에서 8월 25일 대회의실에서 학부모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인턴십 선발 학생 3명에 대한 선발증서 수여식과 함께 학부모 초청 설명회를 가졌다. 우리 학교의 해외 인턴십은 어학 능력과 실무적 역량을 동시에 배양해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수여식에는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김지연 학생 등 총 3명의 학생에게 선발증서가 전달됐다. 이어 열린 학부모 설명회에서는 해외 인턴십에 대한 전반적 설명과 함께 현지생활 및 여건, 학생관리 등에 대한 캐나다 설명이 진행되었다. 구본충 총장은 “해외 인턴십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해 미래의 핵심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충남도립대학교는 앞으로 글로벌 역량을 가진 전문기술 인력 양성을 통해 해외취업의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박소정 \_ seally0528@naver.com

> 보도자료 02

## 충남도립대학교 최고의 브랜드 공직진출

### 우리학교가 작년 42명의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하며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고의 공무원 양성 대학으로 입지를 굳건히 했다.

2016년 12월 말까지 치러진 전국 각종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한 우리학교 졸업 및 재학생 수는 모두 42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입학생이 500명밖에 되지 않고 공무원 관련 학과가 매년 약 200명의 졸업생에 불과한 학생수의 규모로 보면 졸업생 대비 약 20% 정도의 합격 성과이다. 그러나 경이적이란 말이 나올만하다. 이들을 분야별로 보면, △소방 19명 △행정(교육행정 포함) 6명 △경찰 5명 △시설 7명 △환경 1명 △전산 1명 △보건 1명 △교정 1명 △방재안전 1명 등이다. 이로써 우리학교가 지난 1998년 개교한 이후 배출한 공직자(임용예정자 포함) 수는 총 663명으로 늘게 됐다. 이처럼 우리학교가 공무원 양성 명문대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2008년부터 운영 중인 공채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뒷받침 됐다. 이 프로그램은 모의고사를 통해 56명을 선발, 심화학습실 운영, 공채 시험 대비 동·하계 특강, 동영상강의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성취도 향상 장학금 지급, 직렬별 학습동아리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충남도립대는 공직을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입학 때부터 전공분야별 자체 모의고사 및 맞춤형 집중 강의 등을 진행하고, 인사혁신처 및 국회 방문, 공직박람회 관람, 도의회 방청 등 공직 마인드 함양 프로그램도 병행 중이다. 우리 대학 관계자들은 “올해 합격자들이 행정직, 시설직, 환경직, 소방직, 경찰공무원 등 각 분야에서 고루 배출된 데는 우리 대학만의 공직진출 특성화 과정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공무원양성 특성화 대학 위상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공직 진출 부분을 더욱 강화해 경쟁력 있는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단선경 \_ dan634@naver.com

> 보도자료 04

## 2016년 글로벌 해외인턴십 파견



### 우리 학교에서 올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선발된 재학생 3명이 지난 9월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 밴쿠버 현지로 출국했다.

이번 캐나다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은 우리 학교가 글로벌 인재 양성과 해외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학생 1인당 950만 원을 지원해 시행되는 해외인턴십이다. 이번에 선발된 학생들은 밴쿠버에 있는 스프롯-쇼칼리지(Sprott Shaw College)에서 6개월간 어학연수를 마친 뒤 6개월간 현지 업체에서 인턴생활을 하게 된다. 인턴생활 이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해외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구본충 총장은 “앞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학생들이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학교 해외 인턴십은 2010년 호주를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시행됐으며, 현재까지 총 43명의 학생이 수료했다.

❖ 박소정 \_ seally0528@naver.com



&gt; 위 원트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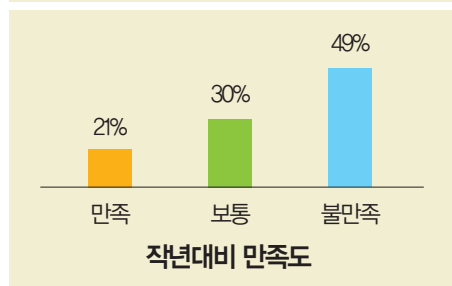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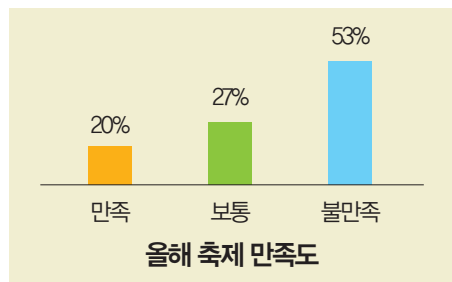
## 벽천해오름제, 그 막이 올라가자...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5월 20일 하루 동안 제 19회 '벽천해오름제'를 개최하였다. 올해 해오름제는 작년에 체육대회와 함께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제18회 총학생회 '너나들이' 주관으로 단독 개최되었다. 색시걸그룹과 디제잉파티로 축제 시작을 알렸고, 기리보이와 키썸 등 최고 래퍼들의 축하공연으로 젊음과 낭만을 만끽하는 가을밤의 축제는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학생들과의 꾸준한 소통을 하며 진행했음에도 학우들의 축제에 대한 불만 가득한 소리를 들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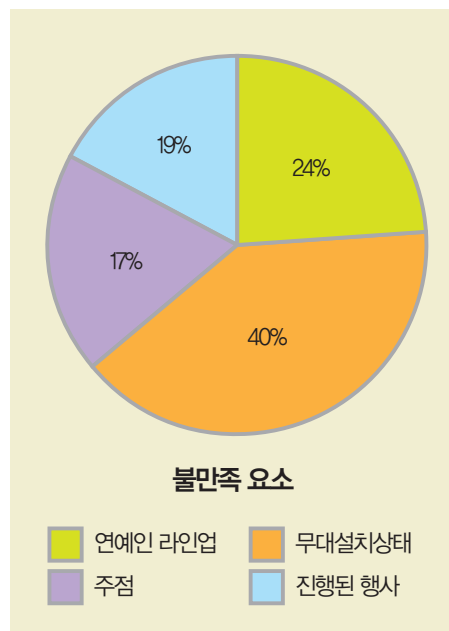
우리 학우들의 벽천해오름제에 대한 불만을 접한 우리 신문사는 구체적인 불만 사항과 문제점을 알아내기 위해 각 과와 관계없이 우리학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축제에 대한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보면 만족 20%, 보통 27%, 불만족 53%로 나타났고, 작년 축제와 비교했을 때의 만족도는 만족 21%, 보통 30%, 불만족 49%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만족 요소는 무대설치 상태 40%, 연예인 라인업 24%, 진행된 행사 19%, 주점 17%로 나타났다. 이 밖에



나타나는 불만족 내용을 보면 “주점과 작은 행사들은 운동장에서 하고 축하공연을 무대는 강당이라 축하 공연이 시작된 줄도 모르고 계속 운동장에 남아있던 몇몇 사람들도 있었고 아직 주점을 운영하는 시간인데 강당으로 다들 들어가 주점을 강제로 닫게 만드는 점이 불쾌했다”, “힙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았던 라인업이다.” 등이었다. 이 중 을 축제의 불만족 사항으로 가장 큰 이유인 무대설치 상태는 무엇 때문인지 알아보자.

위의 사진은 축제 때의 무대 설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올해의 축제 무대는 우리 학교의 해오름관 1층 대강당에서 이루어졌다. 작년의 무대에 비해 협소한 장소에서 진행된 축제는 조명과 음향 등의 기계적인 부분이 열악했다. 축제에 참여한 학생들은 “초등학생 학예회랑 다를 것이 없었다”, “너무 성의 없게 준비한 것처럼 느껴진다.”,



비리와 같은 부정부패 등을 생각하며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만 남긴다고 생각한다. 학생과 총학생회 간의 갈등은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입장표명과 예산 집행 명세서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으로 원활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김형직 \_ pcox3386@naver.com

&gt; 보도자료 05

## 대전·세종·충청지역 전문대학 총장협의회 열리다.



우리 학교는 5월 11일 대학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93차 대전·세종·충청지역 전문대학총장협의회(회장 유재원 한국영상대학교 총장)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3개 회원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안전건의의 순으로 진행됐다. 구본충 총장은 환영사에서 “현재 대학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많지만, 총장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대학이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협의회 회장으로 대전보건대학교 정무남 총장이 선출됐으며, 감사로는 강동대학교 류정윤 총장이 선출됐다. 한편, 대전·세종·충청지역 전문대학총장 협의회는 지역 내 전문대학 간 우호증진과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총장협의체로 충남도립대학교를 비롯한 16개 대학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 노해밀 \_ mumblecore@naver.com

&gt; 보도자료 06

## 제17회 세계머드 피부미용경진대회 및 머드&뷰티페스티벌



지난 20일 '제17회 세계머드 피부미용경진대회 및 머드&뷰티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행사는 머드광장에서 국내외 참가 선수와 모델, 관람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머드 화장품을 이용한 피부 미용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로 보령시가 주최하고 충남도립대학교가 주관하여 치러졌다. 이번 대회에서 학생, 일반인 및 국외팀을 포함 총 2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컬러버드 바디페인팅, 퍼와인딩, 헤어디자인, 네일아트, 헤드스파, 쇼헤어오브체등 부문에서 각자의 기량과 재능을 맘껏 펼쳤다. 우리 대학은 보령 머드축제에서 매년 개최되는 경진 대회를 통해 피부미용 분야의 우수 인재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구본충 총장은 “21세기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특히 피부미용분야는 오늘날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피부미용 전문영역의 세계화를 위한 대회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머드 피부미용경진대회는 1999년을 시작으로 17년 동안 지속해서 개최되는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대회로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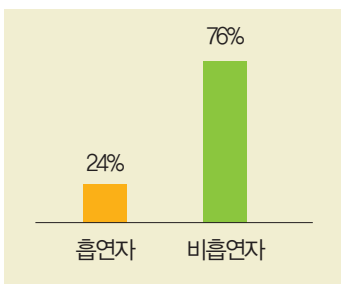
❖ 김형직 \_ pcox3386@naver.com



> 위 원 트 02

## 친구야 담배가 뭘이 중헌디?

우리 신문사에서서는 지난 학기 때 학교에서의 개선 사항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흡연 관련 사항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유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한 주간 세부사항을 다룬 설문을 한 번 더 실시하였다. 그 설문은 10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비율조사와 여러 가지 불만 사항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 각 건물 입구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 교정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공초

조사에 응답해준 학우들의 대답은 이러하였다. 본인은 흡연자인가에 대한 물음에 '예'라고 답한 사람이 24%이고 '아니요'라고 답한 사람은 76%로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비흡연자들은 “금연 장소에 너무 많은 담배 냄새가 난다, 담배 냄새 때문에 심기 불편하고 화가 많이 난다, 기숙사 화장실에서 담배냄새가 환풍기를 타고와 냄새가 너무 난다, 간접흡연이 심하다, 학교 내에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운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많은 불만 사항은 간접흡연이었다. 정해진 흡연 장소에서 흡연했다면 나타나지 않을 불만인데 어떻게 된 일일까?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난다. 바로 흡연자들이 정해진 흡연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흡연하므로 불만이 생겨난 것이다. 우리 학교에서 정해진 흡연 장소는 예지관 주민교육세미나실 앞 야외옥상, 창의관 건물 앞 정자, 창의관 옥상 등 3구역이다. 우리 학교는 이외의 모든 구역이 금연지정장소이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흡연 장소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바로 각 건물의 입구로 나타났다. 건물 입구는 유동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간접흡연에 대한 많은 불만이 나타난 것이다.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문제점은 간접흡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흡연 장소가 아니므로 흡연 후처리 도구가 없어 아무 곳이나 담배꽂초를 버리고 담뱃불을 끄기 위에 가래침을 뱉어 교정을 오염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이렇다. 첫째, 흡연자는 흡연 장소에서만 흡연하도록 학교 차원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 둘째, 금연 캠페인을 확산시키는 방법이다. 이에 우리 신문사에서서는 금연을 추천하며 흡연에 대한 위험성과 금연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줄 정보를 덧붙인다.

### 흡연의 위험성

담배의 유독 성분이 4,000여 종에 이르며 특히 담배의 니코틴성분은 혈압을 올려주고, 심장박동수를 증가시켜 심장에 많은 부담을 주어 협심증의 악화는 물론 심장마비도 초래하여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환자의 25%에서 흡연이 원인이 된다. 또한 벤자피렌이나 폴타르 등의 화학성분들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어 흡연자의 경우 폐암에 걸릴 확률을 10배에서 25배까지 증가시켜 주며 그 외에도 후두암, 식도암, 방광암, 위장암, 자궁경부암까지도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암질환으로 사망하는 자의 85%가 흡연자이기도 하다.

그 외 흡연과 관계된 질병으로서는 만성기관지염, 해소, 천식, 폐기종을 직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으며 협심증, 소화불량, 위장염, 심이지장궤양 등의 악화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임신부에 있어서는 흡연시 유산이 많으며 분만 시에는 정상보다 평균 170그램 정도의 저체중아를 낳게 될 뿐만 아니라 출산 후 영아사망률도 비흡연자보다 훨씬 많으므로 임신부는 특히 절대 금연을 해야하며 비록 자신은 비흡연자일지라도 옆에서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셔도 흡연자와 마찬가지로 건강상의 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간접흡연을 하면 직접 흡연을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질병 발생률과 사망 위험성이 증가한다. 흡연자의 배우자가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과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다. 간접흡연은 특히 어린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세포와 조직이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와 태아가 간접흡연을 하면 감기, 기관지염, 폐렴 등에 감염될 확률이 높고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한다. 또한 천식, 중이염을 발생시키고, 성장이 지연되거나 지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흡연자 부모에게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 흡연자가 될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남에게도 피해주는 흡연, 아직도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담배연기 구성 성분**  
\* 주류연은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 부류연은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 연기

| 성분       | 주류연       | 부류연      |
|----------|-----------|----------|
| 일산화탄소    | 10~23mg   | 2.5~4.7배 |
| 이산화탄소    | 20~40mg   | 8~11배    |
| 벤젠       | 12~48μg   | 5~10배    |
| 포름알데히드   | 70~100μg  | 0.1~50배  |
| 임프니아     | 50~130μg  | 40~170배  |
| 몰루엔      | 100~200μg | 5.6~8.3배 |
| 이세톤      | 100~250μg | 2~5배     |
| 미세먼지(PM) | 15~40mg   | 1.3~1.9배 |
| 니코틴      | 1~2.5mg   | 2.6~3.3배 |
| 벤조피렌     | 20~40ng   | 2.5~3.5배 |
| 페놀       | 60~140μg  | 1.6~3배   |
| 카드롤      | 100ng     | 7.2배     |
| 니켈       | 20~80ng   | 13~30배   |

자료: 미 국립 연구 회의



❖ 김형직 \_ pcoc3386@naver.com

> 보도자료 07

## 2016 나라 현 차세대양성사업단과 우호협력 5주년 맞아 간담회 개최



일본 나라 현 차세대양성사업단이 충청남도과 우호협력을 맺은 지 5주년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여 9월 8일 우리 학교에 방문하였다.

지역대학 방문을 통해 각 지역의 대학생 간 교류협력을 통한 우호증진 및 문화이해를 위하여 만남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나라 현 차세대양성사업단 청년대표단은 이날 우리 학교 학생회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양국의 대학생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호텔관광외식과의 바리스타 실습실을 이용해 바리스타 식음료 실습 등을 실시하고 면암관 2층에 위치한 영화감상실을 견학했다. 차세대양성사업단은 “캠페스가 깨끗해서 좋았고, 넓고 개방적인 느낌을 받았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좋았다.”, “일본 대학은 주로 실습이 아닌 이론 위주의 강의가 진행되는 데 반해 한국의 대학은 취업이나 진로를 위한 실습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 새로웠다.”,

“한국인 친구와의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그 차이를 좁히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등의 소감을 남겼고, 구분석 총학생회장은 “학교와 일본과의 교류가 처음이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해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다. 하지만 즐거운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가 있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방문에 대해 구분석 총장은 “앞으로 양국 간 교류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대학생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고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형직 \_ hjk970106@naver.com ❖ 노해밀 \_ mumblecore@naver.com



## › 위스토리 01

##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상 천안 청수고 특강을 열다.



우리 학교는 5월 9일 천안 청수고 시청각실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구분층 총장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구분층 총장은 현대사회에 대비한 준비하는 삶의 자세를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구분층 총장은 성공하는 삶을 위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장점으로 꿈, 건강관리, 일에 대한 열의와 사랑, 자립심, 배우고자 하는 자세, 인간관계, 적극적인 성격을 소개했다. 이어 구분층 총장은 성공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로 나태함과 자만심 그리고 과욕을 지적하면서 3학년 학생들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성실한 자세를 강조했다. 구 총장은 "자신 스스로 인생을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되며, 꿈은 꾸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현하도록 노력하고 준비하면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단선경 \_ dan634@naver.com

## › 위스토리 03

## '청년취업활성화를 돕는 고교연합 취업캠프' 개최

우리 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13일~14일 동안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졸탁 동시(EGG) 고교연합 취업캠프에 관내 특성화고 (공주마이스터고, 대천여자상업고, 부여정보고, 부여전자고, 주산산업고, 청양고, 충남해양과학고) 7개교 40명에게 취업 준비에 부족한 점을 점검하고 자신감 향상과 취업 마인드 고취, 취업스킬을 향상하여 성공적 취업에 이르게 해 '청년취업활성화를 돕는 고교연합 취업캠프'를 개최 하였다.

이번 캠프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고졸(예정)자에게 참여자 상호간 취업정보를 통해 구직 수준을 파악하고 입사준비를 해봄으로써 실전 감각을 키우기 위해 개최된 캠프로 채용트렌드를 파악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합격 완판 1분 PR, 면접 룰 플레이, 직장인 비즈매너 등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자신의 취업에 대한 동기부여 및 입사지원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마련된다. 우리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박민호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에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여 취업 희망자가 확대되고, 취업역량강화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순차적으로 인근 대학연합, 충청지역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정대학 연합으로 구분하여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캠프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 단선경 \_ dan634@naver.com

## › 위스토리 05

## 2주기 기관평가인증 통과

우리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평가원이 주관하는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과해 인증서를 교부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대학 기관평가인증 제도는 대학교육의 질적 평가를 통해 직업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기관의 책무성 증진을 위해 2011년 도입된 것으로, 충남도립대학교는 1주기에도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은바 있다. 2주기 대학기관평가는 △대학의 사명과 발전계획 △교육과정 △학사관리 및 교육성과 △산학협력 △학생 및 도서관 △교원 △경영 및 재정 △물적·기술적 자원 △대학의 책무와 교육개선 등 9개 평가 영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대학은 학사관리 분야를 제외한 8개 기준을 충족하여 조건부인증으로 통과되었으며 유효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이다. 구분층 총장은 "이번 기관평가인증을 계기로 향후 대학교구조개혁평가에 좋은 평가 기반을 마련하였고,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의 질을 향상 시켜 더욱 내실 있는 대학으로 거듭 나겠다"고 말했다.

❖ 단선경 \_ dan634@naver.com

## › 위스토리 02

## 제18회 충남도립대학교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졸업작품전시회 개최



충남도립대학교 인테리어패션디자인과 18회 졸업작품 전시회가 9월 27일 청양문화예술관에서 개최되었다. 졸업작품전시회는 2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그동안의 실력을 발휘하여 개최하는 전통적인 행사로 올해 18회를 맞이했다. 졸업작품전시회를 기념하고 이 행사를 알리고자 하여 우리 신문사에서 이번 졸업작품 전시회 대표와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이번 졸업작품전시회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냐는 질문에 "이번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책임감 있게 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비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배들이 이 고난을 겪을 것을 생각 하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후배들의 19회 졸업전시회 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고자 올해 준비한 자료와 중요한 부분들을 적은 내용을 잘 전달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18회보다 더 좋은 전시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번 18회 졸업작품전시회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학과장 교수님, 담당 교수님 등과의 소통과 졸업 동기 학우들과의 협력이었다며 이번 졸업작품전시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그리고 그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내면이 한 단계 성숙해지고 디자인 능력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하는 것 같다. 뿌듯하고 성취감이 굉장히 높아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 졸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소감을 남겼다.



❖ 문은주 \_ ansdmswn9485@naver.com ❖ 단선경 \_ dan634@naver.com

## › 위스토리 04

## 청양군 소방복합시설 유치

충남소방복합시설 예정지로 청양군이 선정되다.

충남소방시설 입지선정 평가단은 지난 6월 28일 공주 아트센터 고마에서 후보지를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12-1번지 일원 부지'를 충남소방복합시설 최종 사업 예정지로 정했다. 입지선정 평가단은 국내 학회 추천 14명, 지자체 추천 3명, 도 소방본부 추천 3명 등 모두 20명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들은 27일부터 1박 2일간 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홍성군 장곡면 옥계리,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예산군 삽교읍 목리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양군은 접근성과 경제성, 개발 가능성 등 모든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충남소방복합시설은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8만7천302㎡(117,364평) 부지를 매입 후 충남도에 이관할 계획이며 충청소방학교, 119광역기동단, 소방항공대, 장비정비센터 등 핵심시설과 안전테마파크, 부대시설 및 추가시설로 구성된다. 예산은 400억 원 상당이 투입될 예정이다. 청양군은 단순한 기관이 아닌 관광상품으로도 소방복합시설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복합시설이 완공되면 500여 명이 상주하고 연간 2만여 명의 교육생 등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단선경 \_ dan634@naver.com



> 위스토리 06

## 취업관련 명사초청 특강 박옥근 동희오토 대표이사 초청



우리 학교는 지난 4월 27일 본교 도서관 소강당에서 재학생과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박옥근 동희오토 대표이사를 초청해 취업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 도요타를 이길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특강에서 박옥근 대표는 “자동차 산업이 일자리 창출 및 유지 등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자동차 기업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인재육성을 꼽았다. 이어 박옥근 대표는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 바라는 인재상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취업준비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구본충 총장은 “다양한 산업분야와 취업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라며 “학생들의 전공지식 및 취업 만족도 향상을 위해 관련 산업 전문가 초청 특강을 꾸준히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수 \_ hs7581@naver.com

> 위스토리 07

## 지역주민 순회 봉사활동 “저희가 직접찾아가요!”



우리 학교 ‘찾아가는 지역주민 봉사활동’ 단체는 5월 4일, 11일 청양의료원과 부여군 은산면을 방문해 4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주민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충남도립대 헤어뷰티과 재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지역 순회봉사단은 4일에는 청양의료원에서 입원환자와 의료진 등을 11일은 부여군 은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이미용 헤어커트, 염색, 헤어펌, 발 마사지, 전신마사지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충남도립대학교는 올해 말까지 총 12회에 걸쳐 약 500명의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구본충 총장은 “앞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현장실습기관’으로 발전의 틀을 구축하고, 도민에게 사랑받는 도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이현수 \_ hs7581@naver.com

> 특집취재 01

## 심장으로 하는 스포츠! 우리학교 농구부 ‘BROTHERHOOD’



생산 방법의 기계화, 다양한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사람들의 생활은 매우 편리해졌다. 편리해진 생활 덕분에 육체 활동이 줄어들어 운동 부족 현상이 나타났지만, 다양하고 풍부한 식재료로 영양은 과다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근력 부족에서 오는 요통과 근육의 강직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비만, 고혈압, 심장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는 건강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따로 내어 운동해야 한다. 우리 학교에는 건강한 삶을 위한 운동하는 동아리가 있다. 바로 농구를 좋아하는 약 3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농구동아리 ‘BROTHERHOOD’이다. 이 농구동아리의 회장인 소방안전관리과 2학년 허준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Q 동아리를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A 우선 우리 동아리 이름은 ‘BROTHERHOOD’입니다. 형제애라는 의미의 우리 동아리는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우애를 다지며 함께 농구를 즐기기에 때문에 그렇게 지었고요,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농구경기도 하고, 또 농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동아리입니다.

**Q 동아리 활동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A 5:5 정식 농구경기는 해오름관 1층 강당에서 매주 수요일 19시부터 22시까지 진행하고, 매주 화요일 19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농구 초급반을 운영합니다.

**Q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 또는 얻은 점은 무엇인가요?**

A 아무래도 대학교이다 보니 같은 학교에 다녀도 같은 과가 아니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친해질 기회가 없던 각 다른 과의 사람들과 농구를 하며 형, 동생처럼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이 동아리 활동에서 얻게 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동아리에 더욱 애착도 많이 생기고 소속감도 매우 깊어진 것 같습니다.

**Q 농구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농구선수가 “득점은 한 명의 선수를 기쁘게 하지만, 어시스트는 두 명의 선수를 기쁘게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스포츠도 비슷하겠지만, 팀워크를 통해 무언가를 해냈을 때 전해지는 쾌감은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솔로 플레이로 수비수를 제치고 득점을 했을 때 쾌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팀 단위로 이루어진 스포츠에서 동료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는 것에 가장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매력이 가장 크게 와 닿게 만드는 스포츠는 농구라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

A 저희는 학교에 정식적으로 신청해서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해오름관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아서 배드민턴이나 다른 곳에서 농구를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매번 죄송하다고 하며 양해를 구하며 강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농구의 특성상 강당 전체를 사용해야 하므로 다른 분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점은 매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너무 나쁜 시선만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구를 좋아하는 분이나 배우고 싶은 분은 매주 수요일 19시, 해오름관 1층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남녀 성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고 있으니 부담 없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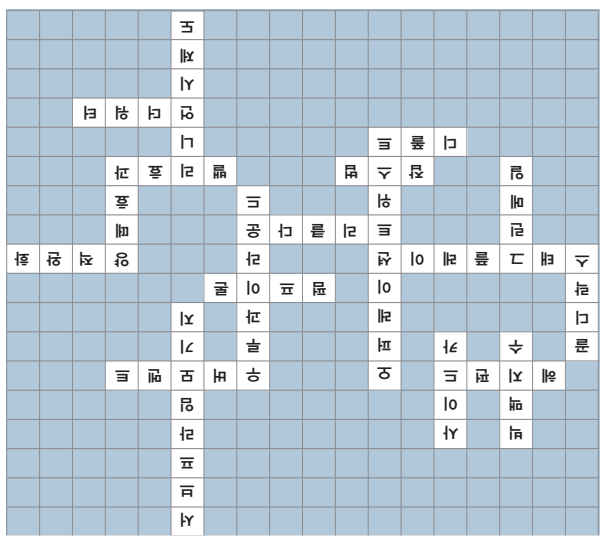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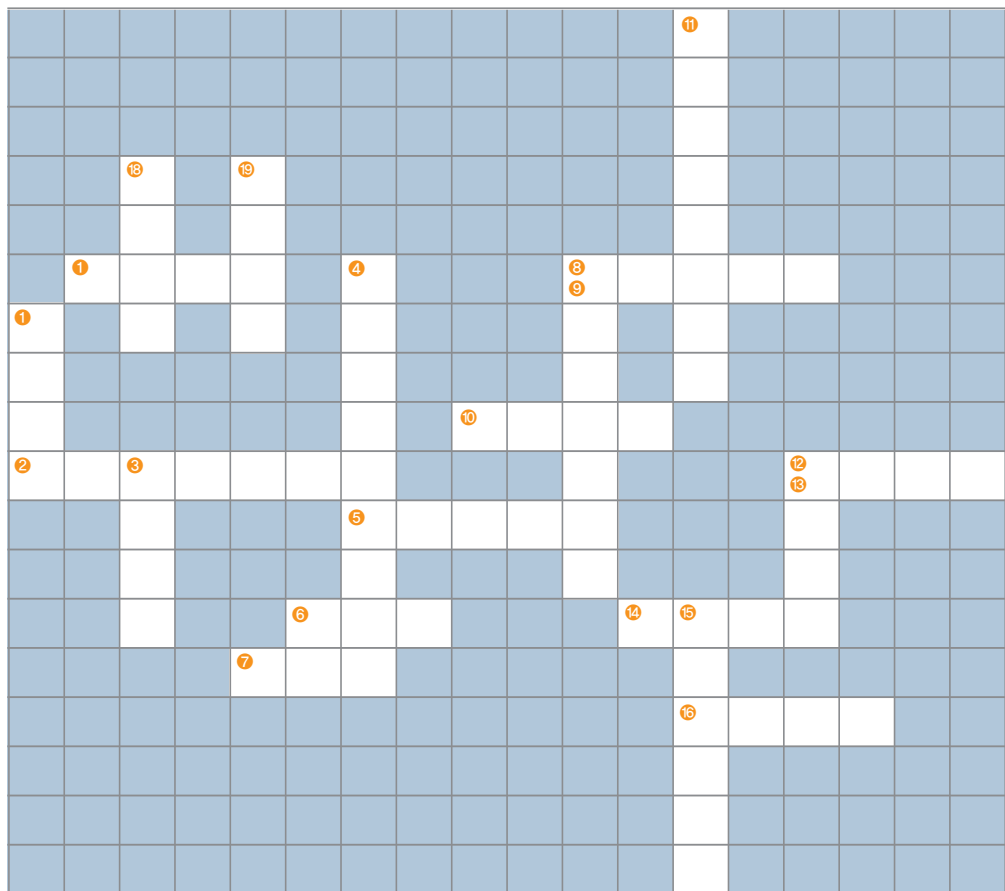
우리 학교 농구부 ‘BROTHERHOOD’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함께 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농구부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카톡 아이디 ‘herjune’으로 카톡을 주시거나 매주 수요일 저녁에 해오름관으로 찾아주세요!

❖ 이현수 \_ hs7581@naver.com



## 경제상식 십자말풀이

경제 십자말풀이 퀴즈는 본교 학생들의 경제상식 수준 향상 및 면접 대비를 위해 충남도립대학교 학보사에서 제작하였습니다.



- ①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과열되지도 않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되지도 않은 경제 상태
- ②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물가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로,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저성장·고물가 상태
- ③ M&A 용어로 경영권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특정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해놓고 기존 대주주에게 M&A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프리미엄을 얻어 주식을 매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M&A란 Mergers and Acquisitions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함)
- ④ 장기국채를 사들이고 단기국채를 매도함으로써 장기금리를 내리고 단기금리는 올리는 공개시장 조작방식
- ⑤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경제 이론
- ⑥ 중소기업과 신생벤처기업들의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이들이 주식시장에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해 고용 확대를 꾀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
- ⑦ 공·사채나 은행용자 등에 대한 이자 지급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
- ⑧ 1986년 9월 남미 우루과이의 Punta del Este에서 개최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각료회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8번째인 1993년 12월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
- ⑨ 새로운 기술과 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 산업 체제가 완전히 바뀌고 위협받는 순간을 뜻하는 말
- ⑩ 부가 위에서 아래로 물방울처럼 떨어질 것을 기다리기보다 복지국가라는 펌프(pump)를 통해 팔팔 흐르게 해야 한다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의 이론
- ⑪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미국의 주택 담보 대출
- ⑫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
- ⑬ 무리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른 이들을 따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군집 효과
- ⑭ 올림픽 개최가 결정된 후 경기장, 도로, 숙박시설과 같은 올림픽 개최를 위한 주변 환경 건설·설비 등에 집중하여 투자함으로써 경기가 과열되었다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그 반작용으로 경기침체가 빠르게 진행되는 개최국의 올림픽 후유증(Post Olympic Slump)을 일컫는 말
- ⑮ 담합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하는 기업에 과징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
- ⑯ '손실을 본 상태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underwater에서 유래한 말로, 주택 가액보다 담보 대출금이 더 높은 상태를 일컫는 말
- ⑰ 단기이익을 목적으로 국제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모집 투자신탁. 투자지역이나 투자대상 등 당국의 규제를 받지 않고 고수익을 노리지만, 투자위험도 높은 투기성 자본
- ⑱ 미국 패스트푸드 회사 맥도날드의 상품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각국의 상대적 물가수준과 통화가치를 비교하는 지수
- ⑲ 선물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거나 떨어질 때 현물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물 프로그램 매매 체결을 지연시켜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장치

❖ 노해밀 \_ mumblecore@naver.com

## 기자후기



박소정 > ooowow@naver.com

한 대학교의 신문방송사 편집장으로 졸업한다는 것은 내 또래에서는 드문 일이기 때문에 이번 1년 동안의 경험은 다른 누구보다 더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박창원 교수님, 그리고 1년 동안 부족한 편집장을 믿고 같이 해준 우리 신문방송사 임원들에게 감사로 보낸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의 학보사도 별 탈 없이 지나갔으니 다음 이어질 대에도 무탈하게 보내길 바란다.



단선경 > dan634@naver.com

신문기자로 일한 지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처음 기사를 썼을 때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진행했습니다. 전문 기자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것 같아 기쁩니다. 그동안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준비를 더욱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로는 해낼 수 없는 일도 신문사 임원들이 서로 도와가며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사히 신문부가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한 임원들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 신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노해밀 > mumblecore@naver.com

1학기 때는 다른 부원들에 비해 많이 참여를 못 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2학기에는 학과 스케줄이나 다른 활동이 겹치지 않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덕분에 학보사 기자가 아니었다면 체험하지 못했을 일들을 해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생각한다.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자활동을 했지만,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아 편집장님과 동료 기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아 고마웠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모두 함께 노력해 이번 기사를 무사히 마무리함에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박창원 교수님과 박소정 편집장님, 형직이, 선경이, 은주, 현수. 모두의 앞날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그동안에 노고에 대한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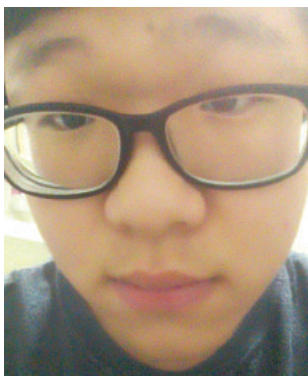
문은주 > ansdmswn9485@naver.com

이번 신문을 만들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임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도 이해하기 힘들어 버벅거린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문사 임원들이 끊임없이 옆에서 알려주고 못 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게 보조해주어서 기사 작성을 무사히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실력이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다음에는 제가 다른 임원을 도와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 우리 신문사에 보탬이 되는 기자로 남고 싶습니다. 좋은 글을 쓰는 충남도립대학 신문 기자로 남고 싶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학교를 외부에 알리는 그런 글을 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신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형직 > pcox3386@naver.com

신문부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1학기가 지났다. 기사를 쓰는 것에서부터 인터뷰까지 모두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조금은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때마다 다른 신문부 부원들이 도와주어서 크게 힘들지 않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스스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결과 결국 글을 완성하고 그 글을 다시 읽어볼 때 느끼는 뿌듯함은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다음 일을 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 앞으로도 신문부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신문부에 꼭 보탬이 되게끔 노력할 것이다.



이현수 > hs7581@naver.com

저는 처음 기사를 쓰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써야 하는지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쓰다 보면 무엇인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편집장님이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울 수 있었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기사가 완성되어 기사를 넘겼는데 편집장님이 잘했다고 해주셨을 때 무엇인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어서 기쁘고 또 여러 기사를 쓰다 보니 일이라는 기분보다 참 재미있는 모임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